죽음에 이르는 질식재해 !

철저한 관리만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.

■ **날씨가 따듯해지면서 오폐수처리장·맨홀·정화조, 축산분뇨 처리작업장 등 밀폐공간에서 유해가스 질식이나 산소결핍**으로 작업자가 사망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

- 최근 10년간(11-20년) 질식재해로 316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여 이중 168명(53%)이 사망하였는데 이는 일반 사고성 재해 사망률(1.2% 내외)의 40배에 이릅니다.

* **질식재해는 한 번의 호흡만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이 최선입니다.**



정화조 | 분료처리장 | 맨홀



원료 저장탱크 | 침전조 | 반응기



식품발효·저장조 | 바지선 부력탱크 | 용접 배관내부

■ 질식사고의 대부분은 밀폐공간에 들어가기 전 산소농도 측정, 환기 및 호흡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으며,

- 작업자들이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사전에 질식 발생 가능성이나 주의사항 등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.

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장비 무상대여



■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밀폐공간작업시 필요한 **유해가스 측정기, 환기팬, 송기마스크를 무상으로 대여**해 드리고 있습니다.

'찾아가는 One Call 서비스'

전화로 신청만 하면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▲유해가스 측정, ▲교육, ▲장비대여를 해드립니다.

■ 신청방법 : 1644-8595

밀폐공간작업시 안전작업 절차

1 밀폐공간의 파악과 교육

- **많은 근로자들이 우리 사업장에 밀폐공간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어도 그 위험성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**
- 우리 사업장에 밀폐공간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이러한 밀폐공간의 위험성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
2 밀폐공간 출입금지표시 및 위험경고

- 밀폐공간 출입구에는 "출입금지" 표시와 함께 질식 위험성을 경고하세요.

3 작업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세요!

- 산소나 유해가스는 눈으로 또는 냄새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**어제 작업했던 장소라고 안심하지 마세요. 반드시 산소측정기 또는 유해가스측정기로 공기상태를 확인하세요.**

산소 18~23.5% 사이, 황화수소 10ppm미만
탄산가스 1.5% 미만, 일산화탄소 30ppm미만
(그 밖의 유해가스는 해당물질의 노출기준)

4 밀폐공간 작업 시 반드시 환기하세요!

- 공기 측정 결과, 적정 공기상태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작업과정에서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분뇨, 오수, 펄프액 등 부패하기 쉬운 물질이 있었던 장소는 **처음에는 공기상태가 정상이었다가 작업자가 휘저을 경우 급격하게 황화수소, 메탄가스가 발생하여 위험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.**

- 밀폐공간 작업 전과 작업 중에는 반드시 환기하세요.

5 긴급상황 발생시 무작정 들어가지 마세요!

- 밀폐공간 내 작업 근로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119나 관리자에게 연락하세요.
- **빨리 구조하겠다고 공기호흡기를 하지 않은 채 들어갔다가는 당신도 위험해집니다.**

※ 질식 사망자의 상당수는 공기호흡기를 하지 않은 채 급하게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들입니다.

고용노동부

2021-04-8